

Kodex^{ETF}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

조수민 책임매니저
Vol.10 2024.12.10

Executive Summary

- 11월 ISM 서비스업 부진 및 고용 둔화세로 12월 금리 인하 기대 80%대까지 상승
- 11월 CPI: 12월 FOMC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실물 지표로 시장 변동성 높일 수 있어
- 시장 주도력 상승 중인 소프트웨어와 연말 소비 증가 수혜가 예상되는 경기소비재 관심

●●●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

미국 낙관론 후퇴+
한국/프랑스 정국 우려:
미국채 금리 하락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11월 ISM 제조업 PMI는 48.4p로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ISM 서비스업 PMI가 52.1p로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비 하락 전환하면서 경기 낙관론이 후퇴했다. 한편, 11월 비농업고용이 전월비 22.7만 명 증가해 예상을 상회했지만, 고용의 질이 저하됐다는 평가로 시장 금리는 하락했다. 더불어, 한국과 프랑스 정국 우려(하원의 총리 불신임안 통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미국채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이에,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5bp, (-)2bp 하락한 4.10%, 4.15%로 마감했다.

11월 고용보고서:
고용 둔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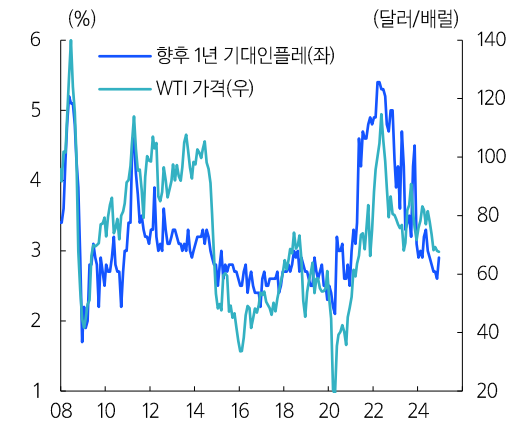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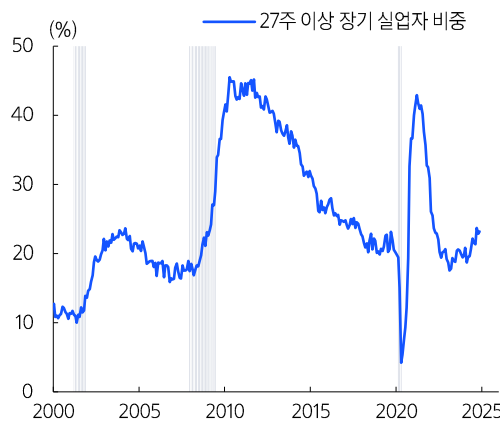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11월 비농업고용은 전월비 22.7만 명 증가했다. 허리케인과 보잉社 파업 여파로 급감했던 10월 비농업고용은 3.6만 명으로 +2.4만 명 상향 조정됐다. 한편, 실업률은 4.2%로 전월비 0.1%p 상승했으며, 실업기간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한,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장기실업자(27주 이상 실업 상태) 비중이 증가하면서[그림1],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87.1%까지 상승했다(CME Fed).

12월 FOMC 전에
넘어야 할 산: 11월 CPI

이번 주는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2/11), 생산자물가지수(PPI, 12/12), ECB 통화정책회의(12/12)와 함께 어도비(12/11) 등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월초 주요 지표 공개 후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80%대까지 되살아난 상태지만, 12월 미시간대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예비치)이 2.9%로(vs. 11월 2.6%)로 상승하는 등 물가 경계감은 여전하다[그림2]. 헤드라인과 근원 CPI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경우 물가 민감도가 재차 상승할 수 있다(헤드라인과 근원 각각 2.7%, 3.3%). 한편, 중국 당국이 9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14년여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선회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내면서, 11-12일 개최되는 중국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림1] 미국: 고용 둔화세 지속

[그림2] 유가 하락에도 기대 인플레이션 반등



※ 주: 음영은 NBER이 정의한 경기침체 구간
※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삼성 Kodex View

AI 테마 내
AI 소프트웨어 주도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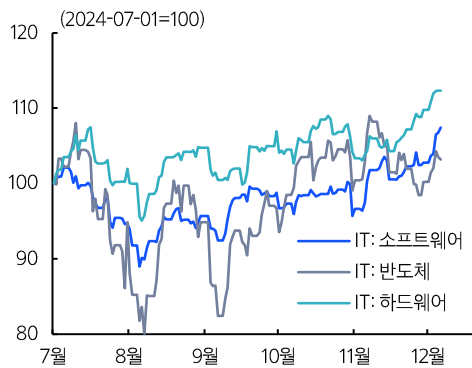
혼란스러운 국내와 달리 미국은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장 금리까지 되돌려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호실적을 기록하며 급등한 세일즈포스, 도큐사인 등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도력이 강해진 것이 눈에 띈다. 과거 테크 산업의 발전 과정을 반추해 보면, 이번 AI 테마 사이클은 [1단계] 인프라 → [2단계] 소프트웨어 → [3단계]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2년 11월 Chat-GPT 출범 이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Capex 투자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와 같이 [1단계]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통해 상당한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제 Chat-GPT가 출범한지 2년이 넘어가면서 시장은 [2단계]로의 진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3].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말 소비 시즌+
내구재 소비 증가:
경기소비업종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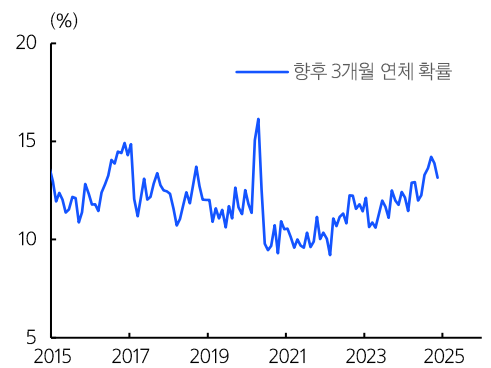
한편, 지난주 공개된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 74.0p로 11월 확정치인 71.8p에서 대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항목 중, 현재 경제여건지수(Current Economic Conditions)가 11월 63.9p에서 12월 77.7p으로 급등하며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 상승을 이끌었다. 미시간대는 관세 등으로 미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소비자들이 내구재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뉴욕 연은이 집계한 향후 3개월 연체 확률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9월 14.2% 고점을 형성하고 2개월 연속 하락했다[그림 4]. 궁극적으로, 견조한 내구재 수요와 소비 여력 증가는 경기소비재 업종의 이익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그림3] S&P500 IT 소프트웨어 상승폭 ↑

[그림4] 미국 향후 3개월 연체 확률: 2개월째 ↓



※ 주: GICS 레벨 2 기준
※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

01 Kodex 미국메타버스나스닥액티브 (종목코드:411420)

AI 소프트웨어 테마 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 메타버스 ETF

- AI 소프트웨어 테마로 분류된 Palantir, Oracle, MongoDB, Salesforce 등 보유
- 주요 투자대상: AppLovin, Palantir, Nvidia, Amazon, Salesforce, ServiceNow 등 26개
- 합성총보수: 연 0.6067%,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2770% 발생,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02 Kodex 미국서학개미 (종목코드:473460)

서학개미 보관금액 기준 상위 25개 종목에 모두 투자(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미국 빅테크,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 및 산업 트렌드 선도 기업에 투자
- 주요 투자대상: Tesla, Nvidia, Apple, IonQ, Palantir, Amazon, MicroStrategy 등
- 총보수: 연 0.25%(운용 0.21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03 Kodex 미국S&P500경기소비재 (종목코드:453660)

연말 소비 증가가 이익 증가로 연결될 미국 경기소비재 섹터 ETF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여력 증가+견조한 내구재 소비 수요 수혜 예상
- 주요 투자대상: Amazon, Tesla, Home Depot, Booking, McDonald's 등 50종목
- 합성총보수: 연 0.3662%,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3419% 발생,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삼성자산운용, 2024년 12월 10일 기준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